

# 최첨단·최신 트렌드 구경 오세요.

주택·건설·건축박람회

## 2015 강원 **eco+** 홈페어

GANGWON ECO HOME FAIR

**일시** 2015년 11월 25일(수)~11월 28일(토)

**장소** 춘천 호반체육관

\*개막식 : 2015. 11. 25 오후 2시  
호반체육관 야외특설무대

### 참가업종

- 건축 자재
- 가구 및 인테리어
- 전원주택
- 주택 정보
- 생활가전 및 디지털 홈
- 조경 및 공공시설
- 욕실 및 주방
- 냉난방 기기
- 창호재
- 조명 및 전기 시설
- 건설장비 및 건설안전 보호구
- 건설 신기술



- ▶문의 : 강원에코홈페어 홈페이지(<http://ecohomefair.kr>)  
☎ 070-7098-8388
- ▶주최 : 강원도건설단체연합회 | 江原日報社
- ▶후원 : 강원도 | 춘천시



강원에코홈페어 2015-주택·건설·건축박람회가 25일부터 28일까지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주택·건설·건축 관련 40개 업체와 지자체 홍보관, 체험 및 전시공간 등 총 78개 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 도내 유일 미끄럼 방지 포장재 생산

세원산업(주)



이 회사의 제품인 'SW-ROAD-KEEPER'는 미끄럼 방지재로 어린이보호구역, 실버존, 일반도로 등의 마감 부분 및 안전시설물과 미끄럼저항성이 요구되는 모든 지역에 사용이 가능한 친환경제품이다. 2014년 미끄럼방지포장재와 도막형 바닥재를 조달형 소량물에 등록하기도 했다.

출신 세원산업(주)(대표:이금선·사진)는 춘천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강원도 유일 미끄럼 방지 포장재를 생산하는 여성기업인증업체이다. ISO9001(품질경영인증), ISO14001(환경경영인증), 단체표준 표시인증 등을 획득했다. 1992년 전문시공사로 출발해 2010년 춘천 거두능공단지에서 신시육과 제1공장을 준공했다.

## 경기장 건설 예산 부족분 671억 지원 요청

최문순 지사 평창동계특위 실훈 위원장 면담

최문순 지사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여야를 상대로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 지사는 19일 국회회를 방문해 예산결산위원회 새누리당 서상기 박명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을 차례로 만나 도 현안 관련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만난 3명의 의원을 따로 따로 여야 소속 23명의 예결위원을 모두 한 차례 이상 만났다. 최 지사는 이 자리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내년도 국비 102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새로운 관광시설 확충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점을 강조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내년도 문화올림픽 예산 100억원 등 향후 3년간 500억원 국비 확보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지사는 이날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실훈 의원을 만나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내년도 경기장 건설 예산 부족분 671억원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동계특위 여야 간사에는 새누리당 이예리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실 위원장은 "평소에 평창특위에 관심이 꽤 있었고 활동하고 싶었다"며 "앞으로 평창올림픽이 순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각종 상황 점검을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 자연과 조화 이루는 新 콘트리트 공법

대상이앤씨(주)



하는 공법이다. 대상이앤씨는 그동안 도전과 창조, 주인·장인·봉사 정신 등의 이념으로 회사 발전을 이뤄냈다. 또 새로운 생각과 기술 창조를 바탕으로 10여명의 석·박사, 20여명의 기술자 등이 함께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해 왔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특허 및 신기술 개발에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원주 대상이앤씨(주)(대표:김용곤·사진)는 건설 신기술 및 신공법 개발과 설계, 시공을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됐다. 대표 브랜드 '뷰락(ViewRock)'은 7년여 동안 신축협력력을 통해 연구개발에 성공한 공법으로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약감과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자연환경, 주변 환경에 조화로운 암석, 바위, 돌 등을 고성능 콘크리트 기술을 이용해 시공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평가 최우수기관 '춘천시' 선정

도는 2015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에 춘천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수기관에는 원주시와 평창군, 장려기관에는 동해시, 횡성군, 정선군이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에는 300만원, 우수기관 200만원, 장려기관에는 100만원의 포상금과 표창장이 수여된다. 아울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협조한 우수 기관·단체로 국방시설본부 강원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원도회를 선정해 도지사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이성현기자 sunny@

### 삼척시 내년 예산안 4,580억원 편성

【삼척】삼척시가 내년도 예산안 4,58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했다. 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2억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마평정수장 연수화사업 등 국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상수도 특별회계가 91억원 줄어드는 등 전체 특별회계에서 21억원이 감소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재정건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인 재원 배

분을 통해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 및 민선 6기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사업의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비롯 공설도지 2단지 조성, 두타권역 농촌개발사업, 치유의 숲, 갈천-중산간 도시계획도로, 이촌체험마을 육성, 복합체육공원 조성, 호산하수처리장 증설, 근덕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확정하고 시의회 예산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황민진기자

###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공조' 특허

(주)새한공조



드 공조시스템을 출시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공조시스템 특허 5건을 등록하기도 했다. 하이브리드 공조시스템은 공조용기술로 실별 냉난방, 실별 의기 냉방, 실별 VAV제어를 할 수 있는 제품으로 관공서 건물, 상가, 주택, 아파트 등에 적용해 4계절 쾌적한 실내공간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춘천 (주)새한공조(대표:박승근·사진)는 1983년 창업해 1999년 춘천 퇴계농공단지에서 공장을 신축하고 공기조화기, 환온환습기, 팬코일 유니트, 공조덕트, 냉난방 공조기기 관련 제품 등을 생산 중이다. 2012년부터 현재의 '(주)새한공조'로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국내 최초로 시설비와 연간 운전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 공기업 공사기간 연장 비용 여전히 나 몰라라

중소건설업계 경영 부담 가중 ... 정산기준 없어 대안 마련 시급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해소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에 따라 공기업들이 불공정 관행을 대부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업계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들은 휴지기 편법 운영, 차수계약 간 간격 운영, 공사용지 미확보, 지장물 미철거, 문화재 발굴 및 이전 민원 등 각종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문제를 개별 소송으로 대응하며 정부가 정산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또 현재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연말까지 진행기로 한 공기 연장 간접비 정산기준의 연구용역 등은 공정

회,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이 도출되기는 어렵다. 실제 일부 공기업에서는 정부가 예산상의 문제로 간접비 관련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등에 각종 불이익이 있는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 올림픽 개·폐회식장 오각형 구조로 설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이 기존의 직사각형에서 오각형 구조로 설계된다.

19일 강원도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올림픽 개·폐회식장에 대한 전면 재설계에 착수, 사각형 형태였던 1차 기본설계와 달리 오각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대규모 문화공연으로 구성될 개폐회식 프로그램의 효과적 연출구조를 고민한 결과로 분석된다.

숫자 5는 '오대륙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올림픽 오륜기와 연결되는 것은 물론 음양오행설이나 오감(五感) 등의 동양적 가치들을 연상시키는 숫자라는 평이다.

추운 날씨를 고려한 지붕 덮개의 필요성도 지속 제기되고 있지만 예산에 따라 그 규모는 유동적일 것으로 알려졌다.

개·폐회식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윤곽도 내달쯤 드러날 전망이다.

송승환 총감독은 "무대 상하부 구조를 폭넓게 활용한 화려한 연출을 통해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의 가치를 다채롭게 표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얼굴이 될 마스크트는 내년 초 정해질 예정이다. 88서울올림픽이 호랑이였던만큼 그에 상응한 상징물이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여진 beatle@kado.net

## 춘천시 '지역건설업체 지원 최우수'

### 원주·평창 우수 선정

강원도의 지역건설업체 지원 우수기관 종합평가 결과 춘천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강원도는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업체 지원 우수기관 종합평가 결과 춘천시를 비롯 6개 시·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인 춘천시와 함께 원주시와 평창군

이 우수기관, 동해시와 횡성군·정선군이 장려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협조한 우수 기관·단체로 국방시설본부 강원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원도회를 선정했다.

도는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 △지역 자재·장비·인력 사용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율 등 11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백오인

## 【 2015.11.20(금) 건설경제 】

### 기계설비協 강원도회, 지역건설 활성화 우수단체 선정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강원도회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강원도는 2015년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시·군 및 유관기관·단체를 선정, 발표했다.

지역건설업체 지원 우수기관 종합평가 결과 △춘천시(최우수) △원주시·평창군(우수) △동해시·횡성군·정선군(장려) 등 6개 시·군을 선정했다. 이들에 각각 300만, 200만, 1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협조한 우수 유관기관·단체로는 설비협회 강원도회

를 비롯해 국방시설본부 강원지역본부, 한 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등이 선정돼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 △지역 자재·장비·인력 사용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율 △기관장의 관심도 △하도급대금 적정 지급여부 △민간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공사발주 시 표준 품셈 적용 △여성기업 지원 등 총 11개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했다.

한편 우수기관 시상식은 내달 15일 도청에서 열리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회의 때 진행될 예정이다. 정희훈기자